

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(2020.7월)

I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

1. 실물경제

① 경기 : 회복세 지속

- 2020.7월중 유로지역 PMI(구매관리자지수, IHS Markit)*는 전월(48.5, +16.6p)보다 6.4p 상승한 54.9로, 지난 4월 역대 최저치(13.6)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여 2018.6월(54.9)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
* PMI는 50이상이면 경기확장, 50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. 다만, 전반적인 경기국면은 PMI 외에도 산업생산, 고용, 투자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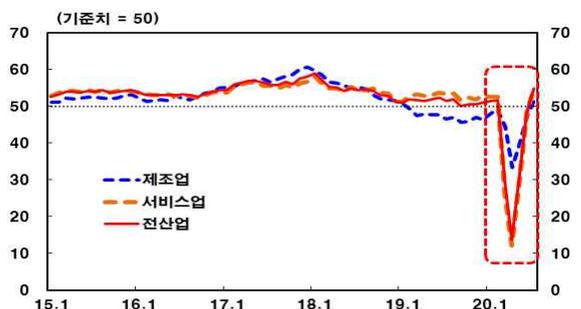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 PMI(48.3 → 54.7, +6.4p)가 더 크게 상승하며 제조업 PMI(47.4 → 51.8, +4.4p)를 상회

- 2020.6월중 소매판매지수*는 110.4로 전월(104.4, +20.3%)에 이어 5.7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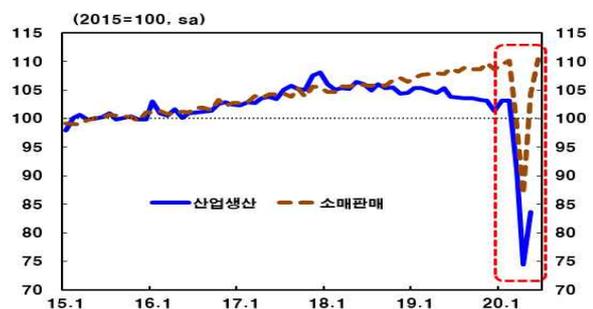
* 섬유 의류(+20.4%), 차량연료(+20.4%) 등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, 통신판매(-6.8%) 등은 하락

- 2020.5월중 산업생산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전월(74.4)에 비해 12.4% 반등한 83.6을 기록

PMI(구매관리자지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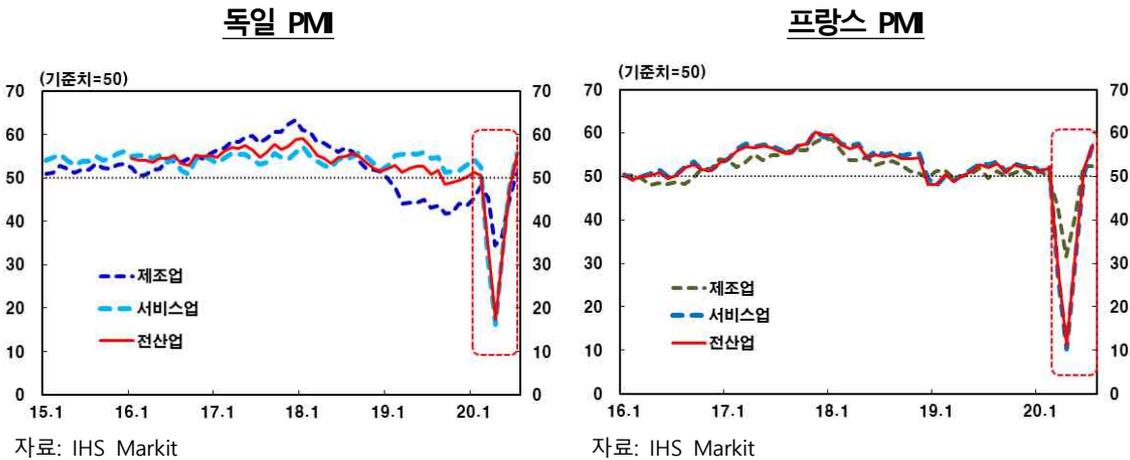
자료: IHS Markit

산업생산지수¹⁾ 및 소매판매지수²⁾

주: 1) 건설업 제외 2) 자동차 제외
자료: Eurostat

□ 국가별로 보면 2020.7월중 **독일 PMI**(55.3, +8.3p) 및 **프랑스 PMI**(57.3, +5.6p) 모두 전월(각 +14.7p, +19.6p)에 이어 **상승세를 유지**하며 각각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.8월(독일, 55.6), 2018.2월(프랑스, 57.3)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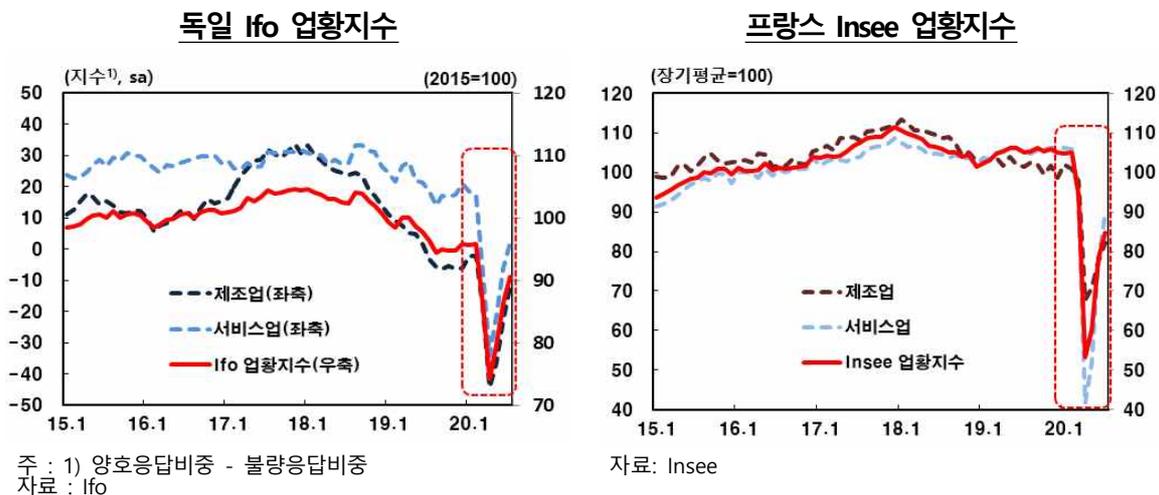
○ 독일과 프랑스 모두 서비스업(각 47.3 → 55.6, 50.7 → 57.3)이 제조업(각 45.2 → 51.0, 52.3 → 52.4)에 비해 크게 상승



□ 2020.7월중 **독일 Ifo** 업황지수(20.6월 86.3 → 7월 90.5) 및 **프랑스 Insee** 업황지수(78.4 → 84.7)도 사상 최저치인 지난 4월(각 74.3, 53.3) 이후 **3개월 연속 상승**

○ 독일 : 현재업황(81.3 → 84.5)보다 미래업황(91.4 → 97.0)에 대한 기대가 더 크며, 제조업(-22.7 → -12.0)은 아직 불량 응답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서비스업(-6.0 → +2.0)은 양호 응답 비중이 다소 높음

○ 프랑스 : 서비스업지수(78.2 → 89.4)가 제조업지수(77.5 → 82.3)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



② 물가 :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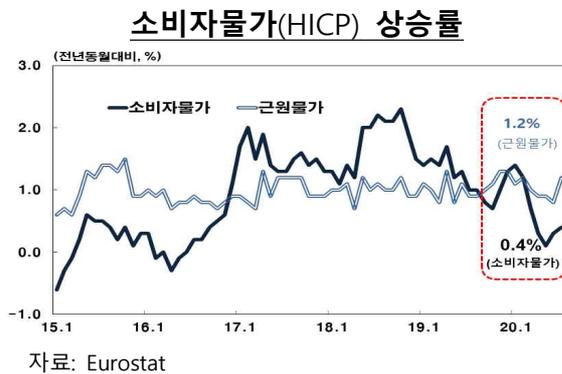
□ 2020.7월중 유로지역 **소비자물가상승률**(HICP, 전년동월대비, 잠정치)은 **0.4%**로 국제유가* 반등세 및 공산품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힘입어**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전월(20.5월 0.1% → 6월 0.3%)에 이어 **상승**

* 브랜드유가(배럴당) : 4월(평균) 18.20 달러 → 5월 29.38 달러 → 6월 40.27 달러 → 7월 43.24 달러

** 기여도(%p) : 에너지 20.6월 -0.93 → 7월 -0.82(+0.11%p), 공산품 0.05 → 0.45(+0.40%p)

○ **근원물가상승률**(에너지, 식료품 제외)도 공산품 가격이 오르며 전월(0.8%)보다 **0.4%p 상승한 1.2%**을 기록*

* 프랑스(0.4% → 1.5%), 이탈리아(0.5% → 2.1%) 등은 크게 상승하였으나, 독일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인하(2020.7~12월) 등의 영향으로 하락(1.1% → 0.7%)



품목별 기여도

(전년동월대비, %p)

	전 품목	에너지	음식료품	공산품	서비스
(가중치)	(100.0)	(9.8)	(19.1)	(26.2)	(44.9)
20.6월(A)	0.27	-0.93	0.60	0.05	0.55
20.7월(B)	0.41	-0.82	0.38	0.45	0.40
B - A	0.14	0.11	-0.22	0.40	-0.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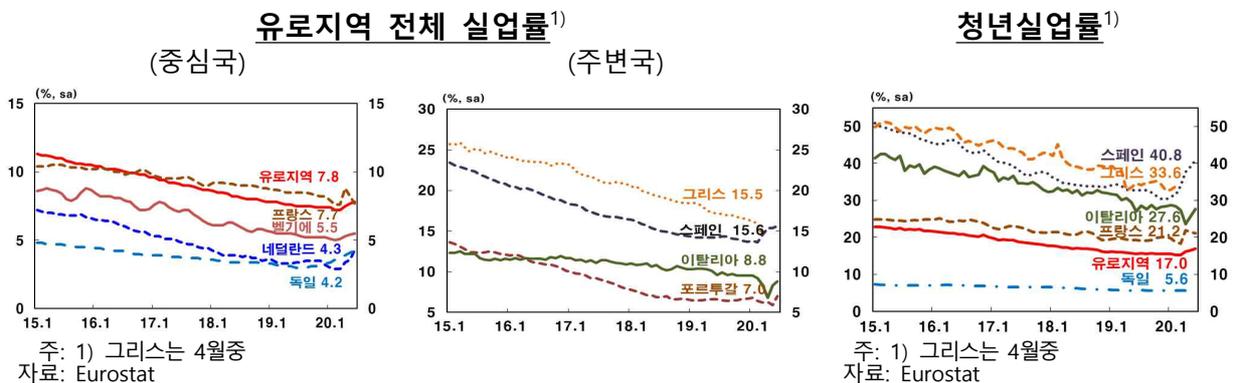
자료: Eurostat

③ 고용사정 : 실업률 소폭 상승

□ 2020.6월중 유로지역 **전체 실업률**은 전월(7.7%, +0.2%p)보다 **0.1%p 상승하며 7.8%**를 기록

○ 국가별로는 프랑스(7.7%, -0.5%p)의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, 네덜란드(4.3%, +0.7%p), 이탈리아(8.8%, +0.5%p), 스페인(15.6%, +0.2%p), 독일(4.2%, +0.1%p), 벨기에(5.5%, +0.1%p) 등 다수 국가의 실업률이 상승

□ **청년실업률**도 전월(16.5%)대비 상승한 **17.0%**를 기록



④ 대외거래 : 수출입 규모 증가 전환 및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(5월 기준)

□ 2020.5월중 유로지역의 **역외 무역수지 흑자규모**(잠정치)는 80.2억 유로로 전월(15.6억 유로) 대비 **64.6억 유로 증가**

○ 전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였던 수출과 수입이 반등* 하였으며, 수출(+107.4억 유로)이 수입(+42.8억 유로)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

* 수출: 20.4월 1,364.6억 유로 → 5월 1,472.0억 유로(+7.9%)
수입: 20.4월 1,349.0억 유로 → 5월 1,391.8억 유로(+3.2%)

○ 독일(+26.6억 유로)과 이탈리아(+38.0억 유로)는 흑자폭 확대, 스페인(+7.1억 유로)은 적자폭 축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으나, 프랑스(-16.3억 유로)는 적자로 전환

유로지역 주요국 역외 무역수지

(억유로, SA)

	유로지역	독 일	프랑스	이탈리아	스페인	네덜란드	벨기에	아일랜드
2020.4월(A)	+15.6	+69.8	+3.6	+1.1	-23.5	-63.3	-7.8	+32.4
2020.5월(B)	+80.2	+96.4	-12.6	+39.1	-16.4	-63.4	-8.3	+38.2
증 감(B-A)	+64.6	+26.6	-16.3	+38.0	+7.1	-0.2	-0.5	+5.9

자료: Eurostat

유로지역 역외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



자료: Eurostat

2. 금융시장

① 시장금리 : 중심국, 주변국 모두 하락

□ 2020.7월중 **독일 국채금리**(10년 만기)는 유로지역내 **코로나19 재확산 우려***, **큰 폭의 마이너스**를 기록한 **2분기 GDP성장률**** 등의 영향으로 전월말에 비해 **하락**(6월말 -0.454% → 7월말 -0.524%, -7.0bp)

* 스페인의 일일 확진자 수가 7월 하순부터 다시 2천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
 ** 1970년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-10.1%(전기대비)를 기록(7.3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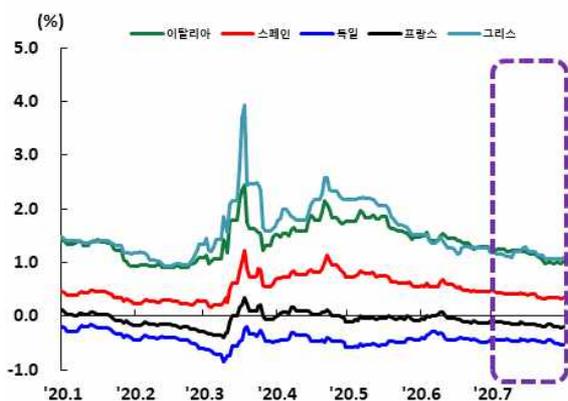
○ 프랑스 국채금리(10년 만기)도 전월말에 비해 하락(6월말 -0.113% → 7월말 -0.193%, -8.0bp)

□ **유로지역 주변국 국채금리**(10년 만기)는 EU 정상회의의 경제회복기금 합의 도출* 등의 영향으로 주변국 국채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이 낮아지면서 **모두 하락****하였으며 **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도 축소*****

* 기금구성(보조금 3,600억 유로, 대출 3,900억 유로), 사업별 지출규모, 집행계획 등(7.21일)
 ** 금리하락폭(6월말 대비): 이탈리아(-24.5bp), 그리스(-12.4bp), 스페인(-12.7bp), 포르투갈(-12.5bp)
 *** 주변국(이탈리아, 그리스, 포르투갈, 스페인)과 독일 국채금리(10년 만기) 간 스프레드의 평균: 6월말 130.7bp → 7월말 122.1bp (-8.5bp)

○ 특히 이탈리아는 경제회복기금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타국에 비해 하락폭이 컸음

유로지역 주요국 국채(10년만기) 금리



자료: Bloomberg

독일과 주변국 국채(10년만기) 금리 간 스프레드¹⁾



주: 1) 음영은 각 스프레드의 평균
 자료: Bloomberg

② 주가 : 하락

□ **유로지역 주가**는 미·중 갈등심화 우려*,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2분기 경제성장 급락**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4개월 만에 **하락**

*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대해 휴스턴, 청두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

** 유로지역 GDP성장률(전기대비)은 -12.1%로 1분기(-3.6%)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확대

○ 2020.7월말 유로 주가(Stoxx50)는 전월말 대비 1.8% 하락한 반면, 독일 주가(DAX30)는 전월말과 비슷한 수준(+0.02%)을 유지

○ 이탈리아(FTSEMIB), 스페인(IBEX) 주가는 각각 전월말 대비 1.5%, 4.9% 하락



자료: Bloomberg



자료: Bloomberg

③ 환율 : 대폭 상승

□ **유로화 가치**는 경제회복기금 합의가 일단락되면서 **유로지역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짐**에 따라 **대폭 상승**

○ 2020.7월말 달러/유로는 전월말 대비 4.84% 상승한 1.178를 기록



자료: Bloomberg



자료: Bloomberg

II

유로지역 경제전망

1. 실물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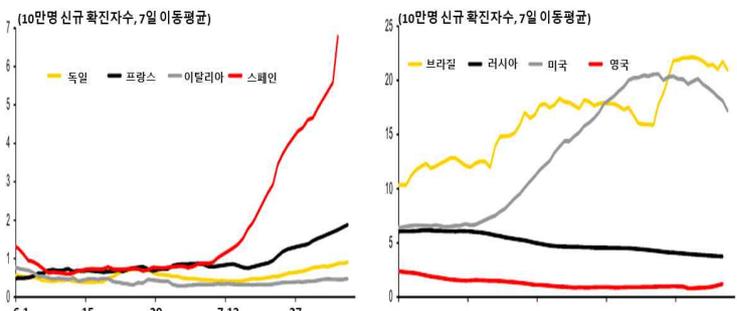
- 유로지역 경제는 2분기 역대 최저 수준(-12.1%)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지만 일부 지표가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하반기 이후 반등할 전망. 다만 그 정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
 - 최근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역내 국가의 확진자수 재증가로 봉쇄조치 완화 지연 및 관광 등 일부 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 등이 발생할 우려
 - 확진자 수 재증가 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등 역외 주요국의 상황도 유로지역의 대외교역 등에 부정적 영향

유로지역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



자료: ECB

주요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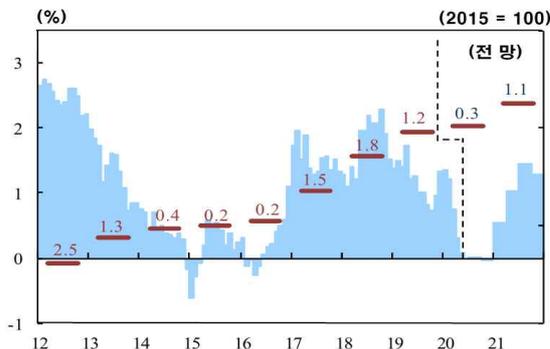


자료: Robert Koch Institute

-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(HICP)은 국제유가 반등 등이 일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, 더딘 수요 회복과 일부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중 0.5% 이내에 머물 전망*

* 주요 기관의 2020년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전망 : EU집행위(20.7월) 0.3%, ECB(6월) 0.3%, OECD(6월) 0.4%

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전망



자료: EU 집행위(2020.7월)

국제유가(브렌트유)



자료: Bloomberg

2. 금융시장

(채권금리)

- 유로지역 투자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 전망치를 전월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
 - 하반기 중 정부지원 프로그램 종료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해질 가능성(하락 요인)과 EU 기관(집행위 등)의 장기채 발행에 따른 고신용채권 증가 가능성(상승 요인) 등을 고려

주요국 정부채권(10년물) 금리전망

	2020.9월		2020.12월		2021.3월	
	전월 ¹⁾ 전망치	금월 ²⁾ 전망치	전월 ¹⁾ 전망치	금월 ²⁾ 전망치	전월 ¹⁾ 전망치	금월 ²⁾ 전망치
독일	-0.50	-0.50	-0.35	-0.35	-0.33	-0.33
영국	0.28	0.23	0.35	0.30	0.43	0.40
미국	0.80	0.75	0.85	0.85	0.98	0.93
일본	-0.05	-0.05	-0.05	-0.05	-0.05	-0.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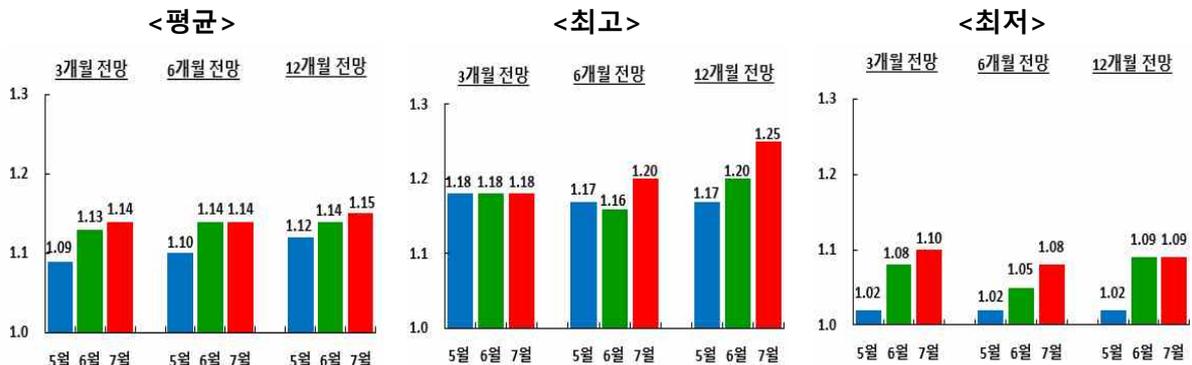
주: 1) 2020.6월 2) 2020.7월 3) 푸른색은 전월 대비 하락
 자료: Commerzbank(7.30일) 및 BLB(8.5일) 전망치의 평균

(환율)

- 향후 유로화 환율은 하반기 중 경기회복 속도,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
 - 일부 투자은행들은 경제회복기금 합의에 따른 경기회복세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환율 전망치(달러/유로)를 상향 조정

* BoA-ML, Citi, Goldman Sachs, Morgan Stanley

주요 투자은행¹⁾들의 환율(달러/유로) 전망(2020.7.27일 기준)



주: 1) Barclays, Credit Suisse, JP Morgan, BNP Paribas, UBS, Goldman Sachs, Morgan Stanley, Citi, BoA-ML, HSBC, Standard Chartered, Nomura 등 12개 투자은행